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인문학
- 한겨레 /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 연간 100권 책 읽는 '손흥민 아빠'...그가 새긴 14가지 지침
- 2022-05-27 /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1044696.html>

① 책 속 명언에 그가 보인다.

지난해 출간 책 속에 다양한 명언 아들의 축구 위해 인문학자 구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노트”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지난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수오서재)를 냈다. 이 책에는 손흥민을 가르치고, 길러온 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 속에 드러난 그의 세계관, 축구철학,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 등을 몇 차례 살펴본다. 먼저 그가 책에서 사용한 동서양의 명언을 통해 내면을 추측해본다. 축구선수는 무식하다는 편견을 몹시도 싫어하는 그는 연간 평균 100권의 책을 독파하는 독서광이다. 젊은 시절부터 신문 스크랩을 했던 그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은 ‘독서노트’이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 수오서재 제공

○ “인파출명 저파비”(人怕出名 豬怕肥)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11쪽에 나오는 중국의 속담이라고 한다.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웅정씨는 자기가 감히 책을 쓴다는 것을 겸양하여 낮추면서, 아들 때문에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손흥민으로 인해 알아봐 주는 이들이 생길 때마다 ‘오지랴 부리며 건방 떨고 살고 있다’며 반성하며 이 말을 새긴다고 한다.

○ “소유한다는 것은 곧 소유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손흥민은 제주도의 해병대 부대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손흥민은 모범적인 생활로 상도 받았고, 백발백중의 영점 자격지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는 “잡다한 것으로 주변이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허투루 쓸 확률도 높아진다”며 아들의 동의를 얻어 자격지를 간직하지 않고 정리했다.

○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서산대사의 답설야(踏雪野) 시구로 “내 뒤로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지 모르니, 눈 덮인 들판이라도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뜻이다. 손웅정씨는 “짧지만 너무도 큰 말이라 매일 곱씹는다. 교육자에게 이보다 올바른 지침이 되는 말은 없다. 부모든 선생이든 코치든 감독이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말 하나 지키며 사는 것도 버겁다고 했다.

○ “대나무는 땅 밑 뿌리 작업에만 5년의 시간을 보낸다”

손웅정씨가 아들 손흥민에게 7년간 리프팅 등 기초만 닦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무가 위로 뻗어 나갈 것만 생각하면 사소한 태풍에도 무너지지만, 뿌리가 튼튼한 대나무는 하루에 20~30cm까지 자란다. 그는 기본기만 훈련하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말한다. “무엇이 불안한가? 당신들의 욕심이 늘 불안한 것 아닌가?”라고.

○ “먼저 눈을 깜박이지 않는 법부터 익혀라”

중국의 <열자>에 나오는 명궁 기창과 스승 비위의 이야기. 비위는 송곳이 눈을 찌를듯해도 감지 말고, 이 한 마리

를 묶어두고 그것이 동산만큼 크게 보일 때까지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손흥민이 왼발, 오른발, 양발로 리프팅을 하며 운동장을 돌 때 아버지는 이런 각도로 훈련시켰다.

○ “좋은 책은 적어도 세 번 읽는다”

손웅정씨는 독서를 할 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 펜을 준비한다. 책을 세 번까지 읽으면서 색깔별로 중요 대목을 압축해 표시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빨간색 메모는 독서노트에 옮겨 적는다. 그는 “읽기만 해도, 적어만 놓아도 소용없다. 반복해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책은 버린다.

○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생각한다”

<시경>의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구절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이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기쁘냐, 뿌듯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손웅정씨는 “우리 삶은 늘 진행형이며 삶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제 반을 왔다는 심정으로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년등과(少年登科)와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손웅정씨는 아들이 선수 생활을 한 이후 늘 초심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항상 배고프고, 항상 바보처럼’이라는 연설처럼, 자기가 한일로 찬사를 받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말기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그는 손흥민에게 “골든부트(득점왕) 받았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없다.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 “흥민아,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 행복한 경기하고 와라”

옛날에는 손흥민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경기 피드백을 했지만, 요즘 경기하러 가는 날에 아들 배웅 나가 안아주며 하는 말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승패를 초월하고, 그런 선수는 돈과 명예를 떠나 공을 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

○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을”

프로축구 선수였지만 20대 부상 은퇴 뒤 가장으로 막노동 등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손웅정씨가 자기를 존중하면서 한 말. 그는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은 사치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 개의 창문을 열었고, 늘 환기하고 있다.

○ 운칠기삼(運七技三)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다는 말이지만, 손웅정씨는 다르게 해석한다. 재주나 노력이 3할이라면 운이 7할인 게 삶이라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운에 맡길 일은 아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내일도 좋으란 법이 없다. 운칠기삼을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

○ “인생의 길은 공사 중이다”

손흥민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화무십일홍이요, 새옹지마라고 말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어도 취하지 말며, 나쁜 일이 있어도 낙담할 일이 아니다.

○ “오늘 하루를 양심껏 살았으면 저녁에 발 뻘고 잘 수 있다”

손웅정씨는 ‘마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꼬장꼬장해 보이는 외모에서부터 짐작하 시겠지만 나는 간섭받는 것이 싫다”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영혼이 상하는 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불혹(不惑)과 지천명(知天命)이 되는 것 아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공부도 더 해야 한다.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옷도 깔끔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말수도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가능한 일이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한다.

■ 흥민아, 잡념부터 차버려...손흥민 아버지의 훈련 원칙이었다

■ 등록 : 2022-05-30 /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1044979.html>

② 일관된 삶 반영 3개의 키워드

반골 기질 각 잡힌 삶의 바탕은 청소
호텔 방 나갈 때 들어올 때와 똑같아
체육관 화장실도 락스로 직접 닦아

군대에서 ‘각’은 생명이다. 내무반 생활은 각을 잡기 위한 시간이다. 근대적 군사교본이 전투력을 염두에 둔 태도의 하나로 각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도 책 읽는 것에서부터 잠자는 것까지 자세나 태도에 대한 주문은 엄격했다. 마음가짐에서 몸가짐이 나오고, 몸가짐에서 마음가짐이 나온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손웅정 저)를 보면 손웅정씨의 삶은 일관되게 ‘청소’와 연결돼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아침마다 혼자 훈련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과 화장실까지 다 비질을 했다. 그래야 개운했다. 그러곤 집 뒤의 언덕길을 달리곤 했다.”(89쪽)



손웅정씨(맨 왼쪽)가 손축구아카데미에서 아들 손흥민과 손흥윤, 유소년 선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어려서 몸에 밴 청소 습관은 배웠다기보다는 타고난 성정이다. “운동, 청소, 책임져야 할 일, 약속한 일을 제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고약한 성격이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포장해주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개인 운동을 하고 집 안 청소를 했다. 막노동판에 나갈 때는 새벽 운동을 위해 3시 반에 일어났다. 운동과 청소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루 일과다.”(51쪽)

담백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가난과 억압,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를 일관성 있게 지탱해준 힘이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규칙적인 일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준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난과 고통도 배가된다.”(52쪽)

사실 청소를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방을 보면 기분도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손웅정한테는 참선의 길이기도 하다.

“(월급 27만원의) 생활체육시설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했다. 출근하면 새벽부터 청소했다. 맨발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티끌 하나 없이 청소했다. 미화원 아주머니들 청소구역인 남자 화장실까지 락스와 장갑, 수세미를 챙겨 들고 구석구석 닦아냈다. 까다로울 정도로 깔끔떠는 건 청소뿐만이 아니다. 내 삶이나 생활이나 관계,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걸 싫어한다. 삶은 담박할수록 좋다.”(45쪽)

그가 다녀간 호텔엔 흔적이 남지 않는다. 하루를 이용해도, 여러 날을 묵어도 똑같다. 한 지인은 “잠자고 나면 쓰레

기를 하나의 봉투에 모은다. 청소 아주머니가 오면 그것만 들고 나가게 한다. 나머지는 들어올 때처럼 가지런히 해 놓고, 물티슈로 테이블도 티끌 하나 없이 닦는다. 여러 날 목을 때면 수건 공급 외에는 청소 아주머니가 할 일이 없다. 나갈 때는 들어올 때 그대로 방을 정리해놓고 나간다”고 했다.

런던 자택에서도 새벽 4시 30분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환기며, 소리 나지 않게 하는 청소다. 아들이 운동 나간 뒤에는 청소기 돌려가며 본격적으로 한다. “청소 시간은 두 시간 이상이다. 청소 시간은 사색의 시간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난 일들을 돌아본다. 마치 산책과도 같고 참선과도 같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물결치던 마음은 고요히 정돈되고, 몰랐던 질문의 해답들이 우물처럼 차오른다. 청소를 마치고 한 시간 반 동안 운동 하면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200쪽)

청소, 운동, 독서는 그의 3락이며, 몸과 마음을 닦아주는 3개의 키워드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짓밟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246쪽) 그의 말처럼 청소나 운동의 습관은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된다. 그의 반골기질이나 반성적 사고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 서산초등학교에서 남보다 늦게 축구를 시작한 손웅정씨는 어려서부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중학교에서 팀을 창단하면서 서산초 감독까지 영입하겠다는 약속을 깨자, 그는 “그분(감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학기 동안 “언어맞으면서도” 축구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고교와 대학 진학 때도 그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애초 정원 초과로 선수를 뽑았다가 무책임하게 탈락시킨 학교 행태에 분개하고, 혼자 남는 게 개운치 않아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될 것을 알지만” 대책 없이 짐 싸고 나오기도 했다.

기성 세계의 질서는 강고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합숙소 생활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무엇하나 변변한 것 없는 영망이었다. 훈련만이 내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런 생활을 하며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것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를 물건 취급하는 현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조금 실력이 보인다 싶으면 그 선수의 미래는 바로 어른들의 철저한 계산 안에서 저당 잡히고 만다.”(74~75쪽)

그 벽에 맞서 혈혈단신으로 싸우다 깨지고 좌절했다. 하지만 상처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래서 큰아들 흥운과 흥민을 자신이 직접 가르쳤고, 프로그램도 기존에 없는 것으로 대체했다. 물론 훈련 때도 청소는 기본이다. “나는 흥운이 흥민이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이 넘게 깨끗이 바닥을 청소했다.”(170쪽)

“신외무물(身外無物), 나이가 들수록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275쪽) 청소와 운동, 독서를 통해 자신을 만들어온 그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생각해보니, 자기애로 푹푹 뭉친 사람이었군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혼자 슬며시 웃는다”(274쪽)고 했다. 하지만 자기애도 일종의 학습이고 노력이다. 배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해 뜨기 전에 줄려 눈뜨기도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신을 번쩍 차린 고통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뤄진 것이다. 청소하는 마음 또한 자기애의 표시일 것이다.

■ 누구를 위한 가혹한 훈련?...손흥민을 학교 운동부에 안 보낸 이유

■ 등록 : 2022-06-03 / <https://m.hani.co.kr/arti/sports/soccer/1045666.html>

③ 뼈뺌하게 바라보며 창조적 파괴

어린 선수 몸에 강압 훈련 선수 생명 축소 목도
 선수 혹사, 그제 학교·지도자 이해타산 일수도
 국가주의·엘리트주의 체육 반감에 다른 길 찾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답도 있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수오서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수동적인 대상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환경을 통제하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뤄지는 옛 지도자들의 훈련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우리를 가르친다. 타이어를 끌며 뛰게 했고, 계단과 운동장을 뛰게 했다. 어디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단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설명은 없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입고,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에 연골이 닳고 근육이 상해 수술에 의지해 버리는 상황도 목도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사라진 선수들을 보면서, 그의 가슴엔 기득권 질서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반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근육을 고사리에 비유한다.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라면 무리한 충격을 가해선 안 된다. 어린 고사리를 다루듯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야 한다. 눈앞의 성과를 위해,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가능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상한 지도자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학원 축구에서는 권위적인 지도자 아래 강압적인 선수 훈련이 이뤄져 왔다. 그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던 시대의 소산이기도 했다.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은 이런 토양을 구조화했다. 학교는 엘리트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기지 구실을 했고, 선수의 운명은 지도자나 학교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기 일쑤였다.

손웅정씨도 중학교 1학년 때 서산에서 춘천으로 팀을 옮기면서, 또 고교에 진학하고 다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엘리트 스포츠 판에서 이뤄지는 부조리함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합숙소 생활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무엇 하나 변변한 것 없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던 시절, 군것질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보내준 용돈으로 오돌도돌 커다란 맘모스빵을 사다 먹었지만 나에겐 언감생심. 고봉밥을 먹는 것으로 버텼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견뎌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선수를 물건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누구는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 당신이 책임질 일이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애초 어른들의 디자인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선수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상황과 의미와 맥락을 왜곡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가령 과거 선수 스카우트를 둘러싼 학교 간 경쟁, 선수 납치, 잠적, 실종, 졸업유예 등의 논란은 학교와 지도자들의 계획과 계산에서 불거진 일들이다.

성인들로 구성된 실업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성적에 집착해 선수들을 혹사하는 모습에서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누구를 위한 성적이고 누구를 위한 우승인가. 선수를 위한 트로피가 아닌, 선수의 몸을 희생해 얻는 지도자들의 실적과 다음 스텝을 위한 발판 같았다.” 손웅정씨가 한 때 실업팀 트레이닝 코치로 일하다가 대책 없이 때려치우고 나온 이유다.

이런 손웅정씨가 아들 손흥민을 학교 운동부에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선수였지만 한 명을 제칠 수 있는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완성하지 못했다. 기본기는 없었고 성적은 내야 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했다.” “한국축구의 고질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났다. 경로를 바꿔야 했다. 눈만 뜨면 축구 프로그램을 생각했고, 사소한 아이디어도 기록하려고 메모장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

결론은 기본기, 몸의 밸런스, 볼 감각 세 가지로 압축됐고, 손흥민은 리프팅, 간결한 볼 터치, 양발 사용, 나이에 맞는 체력·슈팅 훈련 등으로 세분화한 훈련을 받으며 조련됐다. 지금 들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엔 혁신이었다. 손웅정씨는 “아들이 분데스리가에서 데뷔골을 넣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는 없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발현된 것뿐”이라고 했다.

손흥민의 등록상표인 별칙구역 모서리에서 드리블하며 감아차는 골도 연습의 산물이다. 손웅정씨는 200개 이상의 각종 축구 동영상을 돌려보며 공격수가 결정적 기회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집중해서 분석했고, 손흥민의 슈팅 훈련에 개선점을 접목했다. 손흥민존의 감아차기슌은 “페스로 들어오는 공의 첫 터치부터 슈팅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한 반복훈련의 산물”이라는 게 아버지의 설명이다. 물론 18살 이후 집중된 하루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훈련은 기본이었다.

기존 관행을 뼈뼋하게 바라보는 그는 창조적 파괴자다. 그는 학교의 처사에 반발해 중학교 축구팀에서 방출되자 춘천의 우두산 꼭대기에 있는 충열탑 계단에서 두칸씩 다리 모아 뛰며 하체를 단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손축구아카데미에는 스탠드의 높이가 다르게 설치돼 있는데, 아이들 훈련을 위한 이런 계단 배치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중학교 시절 그는 왼발을 사용하기 위해 오른발 축구화 뒷개 부분에 압정을 박아 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아들 손흥민이 양발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지도를 통해 가능해졌다.

물론 즐기는 축구는 최고의 목표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는 흥윤, 흥민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수가 못되고 일반 학교에 가야 한다면 기술이나 농업을 배워라. 조금 일찍 하교해 좋아하는 축구를 하라. 직장을 잡을 때도 연봉이 낮은 대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곳을 택하라. 그래서 시간이 남고, 좋아하는 것이 축구라면 축구를 하라.”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라는 숫자부터 시작한다. 이 하나를 완벽하게 익히기 전까지 절대 둘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그의 축구 철학에서 손흥민이 나왔다.

■ 독한 스승 손웅정 ‘내 아들 손흥민 축구 홈스쿨링 비법은...’

■ 등록 : 2022-06-07 /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1045961.html>

④ 아이들은 내 소유 아닌 인격체

혹독한 훈련에 “아비 아냐” 소리도
 평등 원칙으로 함께 뛰고, 함께 훈련
 경기장 밖에선 늘 ‘포옹’ 마음 전달

아버지나 스승이냐?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 아버지 손웅정씨는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호랑이 선생님보다 더 엄격한 스승의 이미지다.

프로 무대에서도 뒀 손웅정씨는 축구판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하겠다면?

손웅정씨는 먼저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축구 어렵다. 그동안 공놀이했던 것과는 달라. 그래도 할래?” 이 말에 두 아들 흥윤과 흥민은 “한다”라고 했고, 이는 물릴 수 없는 계약이 됐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나는 이 훈련은 너희가 가르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임을 매번 새롭게 각인시켰다.” 손흥민은 아버지가 애초 약속을 받고 시작한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꼼꼼한 아버지의 훈련 방식이 두 아들에게 재미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운동장 한 바퀴는 왼발, 한 바퀴는 오른발, 한 바퀴는 양발을 교차해 리프팅을 해야 한다. 볼을 골대에 차 넣는 것이 아니라 볼과 함께 걷고 볼과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볼을 놓치면 아무리 세 바퀴째 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켰다.” 아버지는 컨트롤이 어렵게 바람을 잔뜩 넣은 공을 준비했다.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힘들다고 투정하면 정에 끌린 아버지가 물러선다. 아주 독한 아버지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시종일관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식을 직접 가르치기는 쉽지 않고, 성공하기도 힘들다.

손웅정씨는 달랐다. “나는 아이들을 혹독하게 키웠다. 변명할 생각도 축소할 생각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감양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뿐이었다.” “낙숫물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 듯한 반복. 그곳에서 기본기가 시작된다. 아버가 무서우니 말은 못했겠지만 지루하고 지쳤을 테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가르치고 싶었다.”

엄격한 스승이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질 수는 없다. 아들에 바친 헌신이 그렇다.

손흥민도 유럽 생활 초기 어려움이 많았다. 2011~2012시즌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는 강등 위기에 처했지만, 시즌 중 부임한 감독은 손흥민을 잘 기용하지 않았다. 6개월간 벤치에 밀리는 일이 이어졌고, 손웅정씨는 위기를 느꼈다. “경기를 뛰는 선수와 달리 뛰지 못하는 선수는 3경기만 빠져도 감각을 잃는다.” 그는 아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훈련량도 경기를 뛴 선수보다 1.5배로 더 늘려야 한다. 교체로 들어가면 호흡도 안 터지고 경기 속도에 맞추기 어렵다. 풀타임을 뛴 것처럼 호흡을 올려야 한다”며 미친 듯이 뛰며 호흡에 대비했다. 손흥민은 막판 출전해 팀의 강등을 막는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 대표팀 훈련을 하면서 출전하지는 못한 채 동료들과 똑같이 먹어 체중이 4kg이 불었다. 체중의 변화는 비상이다. 소속팀이나 팬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자칫 슬럼프에 빠지고, 출전이 불발되는 일이 많아지면, ‘왜 이러지?’ 하면서 정신까지 위축된다. 이 악순환을 막는 것 역시 훈련밖에 없다. 아버지로서 그는 즐거이 희생을 감수했다.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정착 초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올인했다. 50유로 짜리 여관방에서 기거하며 아들의 팀 훈련을 펜스 밖에서 종일 지켜보며 개선점을 찾아냈다. “흥민이를 (팀 숙소에서) 쉬게 하고 여관방으로 돌아오면 방은 차디찼다. 너무 추워 한 시간 반 정도를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체온으로 덥혀야 잠들 수 있었다.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나는 3년이였다.”

손웅정씨는 팔짱 끼고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슈팅 훈련을 하다 보면 볼은 골대 맞고도 나가고 운동장 밖으로도 튀어나간다. 나는 흥민이를 세워두고 사방에 흩어진 공을 주어 모았다.” “운동장 땁별에서 훈련할 때 흥민이는 나무 그늘에 세워두고, 나는 땁별 아래서 공을 패스했다.”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이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이들이 흘리는 땀만큼 흘렸다. 아니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네 식구의 단칸방 문이 열어 몸으로 밀어 열어야 하는 형편에도 좋은 축구화를 사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12년

된 120만원짜리 프라이드를 사 비와 추위를 피해 다니며 훈련할 때, 손흥민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훈련했다.

손웅정씨는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늘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두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손흥민을 슈퍼스타로 만들 욕심은 없었고, 대충대충 가르치기는 싫었다.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손흥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손웅정씨는 2019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토트넘과 리버풀의 대결에서 진 아들이 풀타임을 뛰고 관중석에 있는 자기에게 울면서 다가오자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잘했어. 너 안 다쳤잖아. 너 잘 뛰었잖아. 아빠는 이걸로 충분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했다. 엄하게 혼낼 때는 저거 아비도 아니라며 욕을 했고, 다른 한편 저렇게 감싸고 돌면서 무슨 선수를 만들겠냐고 흥을 봤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 보이라고.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고.”

스승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그를 규정할 수는 없다. 누구나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스파크’. 선도 약도 아닌 그 스파크가 그의 본질일지도 모른다.